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 - 58
----------	---------

제출년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최찬규, 한명훈, 현옥순,
김태성, 이상우, 백승희,
안두희 의원(7인)

1. 주 문

- 신안산선을 현재 종점인 (가칭)한양대역에서 사동 그랑시티 자이 일원까지 연장하여 자이역을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함.

2. 제안이유

-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총 4조 3,055억 원이 투입되어 (가칭)한양대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연결하는 등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광역철도 사업임.
- 안산시 사동 일대의 주거·산업 개발과 대부도의 관광·개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만으로는 장래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은 현재 종점인 (가칭)한양대역에서 약 28km를 연장하여 사동 그랑시티자이

일원에 자이역을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 밸리지구' 지정고시(2026. 1. 15.) 등에 따른 주거·산업·관광 광역교통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 인프라임.

- 2024년 안산시의 공식적인 건의와 최근 2만 5천여 명의 안산 시민 서명 동의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는 등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절실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국토교통부가 2026년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인 만큼, 정부는 변화된 도시 여건과 장래 교통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국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총 4조 3,055억 원이 투입되어 안산(가칭)한양대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 만에 연결하는 등 수도권 서남부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다.

과거 2010년 신안산선이 최초 고시될 당시, 안산 노선의 종점은 ‘중앙역’ 이었다. 이후 안산시는 주거 중심 개발 등 치밀한 도시계획과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해 냈고, 그 결과 2015년 종점을 ‘(가칭)호수역’ 과 ‘(가칭)한양대역’ 까지 끌어오는 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제는 그 연장의 성공적인 역사를 ‘자이역’ 과 ‘대부도’ 로 이어가 안산 광역 철도망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다.

사동 일대에는 7,600세대 규모의 그랑시티자이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89블록 개발사업, 90블록 복합용지 개발사업, 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1월 15일 사동 일대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로 지정·고시 되면서 사동 일원은 인공지능 전환과 첨단로봇, 스마트제조 R&D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첨단기업과 우수한 미래 인재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거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연결이 필수적이다.

서해안 시대에 발맞춰 무한한 관광자원 및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는 대부도 역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만으로는 장래 교통수요를 안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부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철도와 도로가 연계된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안산시는 2024년, 현재 신안산선 종점인 (가칭)한양대역에서 약 28km를 연장하여 사동 그랑시티자이 일원에 자이역을 신설하고, 송산그린시티를 거쳐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반기 중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전달된 2만 5천여 명 주민의 서명 동의서는 신안산선 연장과 자이역 신설이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안산의 미래 성장은 물론, 수도권 서남부권의 상생 발전 및 광역교통권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70만 안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신안산선 연장 및 자이역 신설의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라.

하나. 국회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의 성공적 안착과 수도권 서남부권 주민들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본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서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70만 안산시민의 염원과 교통수요의 필요성을
무접게 받아들여, 국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안산선 자이역 신설 및 대부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확정·고시하라.

2026. 9. 10.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